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이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교사역의 탁월한 코디네이터 이십니다! 한국에서 제가 자란 모교회의 목사님은 늘 롬팔이팔(로마서 8:28)을 외치며 하나님의 기묘한 계획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찌라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삶에 찌든 죄의 본성을 사르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달은 이러한 여러 봉사팀과 단기선교사들과의 협력으로 ‘롬팔이팔’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 성장하는 **깜뽕짬 씨앗교회**

지난 6월 부터 8월까지 방문한 5개의 단기봉사팀과의 동역을 통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진행하였고 매주일 6-70여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글과 영어 강의후 32명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으며 이중 25명이 교회에 새로 등록하였습니다. 단기봉사팀들이 다녀간 이후 매주 주일예배에 평균 2-30여명의 사람들이 늘어나 새롭게 이사한 장소가 또 협소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일 주일학교 학생들과 장년예배에 15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더이상 가정집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면 현지의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짓기 원하지만 현지의 형편상 깜뽕짬 도심내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현지교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깜뽕짬 도심내에 교회부지(2,000m<sup>2</sup>)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회는 짓지 않더라도 지붕만이라도 올려 예배드릴 수 있는 가건물을 지어 교회성장의 한계를 헐고자 하는 것입니다. 깜뽕짬의 씨앗교회가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도차이나와 회교권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

지난 1년간 기초성경공부와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훈련을 받는 9명의 청년들은 이번달 모든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성도들을 1-2명씩 맡아 훈련자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도 5명의 새로운 그룹을 맡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1년 반만에야 끝나게 되었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후에 지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다른 제자양육 교재를 번역하는 중에 있는데 성령의 지혜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번역된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해 왔는데 LA에 계시는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인쇄에 필요한 재정이 후원되어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크메르어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교재의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두란노와 판권계약을 마친상태라 언제든지 출간이 가능했지만, 몇차례 교정과 재번역이 필요한 곳을 수정하느라 3개월 동안 새로운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캄뽕싸움 주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11월에는 캄뽕잠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전도와 양육의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길)

### **잠족마을 영어교실!**

캄뽕잠의 잠족마을은 100% 회교지역으로 그간 그리스도인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캄뽕잠 시내에서의 목회사실이 알려 지면서 잠족마을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사역에는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지난해에는 함께 사역하던 현지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밝혀버려 마을로의 이주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개월간은 크메르사역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간 ‘로고스어학원’ 사역이 캄뽕잠 시내에서 무료학원이면서도 ‘좋은 학원’으로 알려져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문자들과 함께 잠족마을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간 관계가 서먹했던 마을 촌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장소문제로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마침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빌려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차례 100여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3명의 현지 대학생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로고스어학원’사역을 잠족마을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매번 한시간씩 배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과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잠족사역을 위한 좋은 거점이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꼬쏘똌 섬 사역을 위한 보트구입을 위해서 - 6인승 2,180불)

### **캄뽕잠에서**

백신중/강은경 선교사 드림  
지원, 지민, 지우, 지수

### **\* 감사제목**

1. 잠족마을에 영어교실을 통해서 사역거점이 확보됨에 감사
2. 단기봉사팀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함을 감사
3. 제자양육 교재 출간을 위한 후원허락하심에 감사